

### “신계사 복원 불사로 북녘동포 마음 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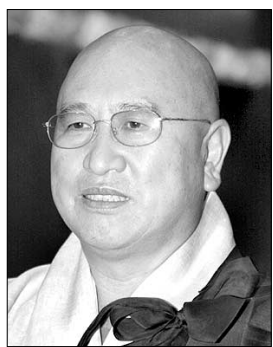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장 종상 스님

“신계사는 서기 519년에 창건돼 천오백년 가까이 우리 민족과 고난을 함께하며 이 땅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신계사 복원 불사는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이 거듭 태어나는 일이자, 민족정신이 되살아나는 민족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월 19일 신계사복원추진위원장으로서 추대된 종상 스님(불국사 주지·사진)은 “신계사 복원 불사는 남북민간교류 사업의 모범이자 전통문화교류로서 민족정신 확립 회복과 남북통일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의 불자대중은 역사적인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민족통일의 상징이 될 신계사 복원 불사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여법히 추진해야 합니다.”

스님은 평화와 화합, 자비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위대한 전



통을 간직한 불교는 신계사 복원을 통해 이 땅에 민족평화와 통일 꽃을 피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녘 동포들의 닫힌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이 신계사 복원 불사의 목적”이라는 종상 스님은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 해인사 대형 불사 축소

### 25일 산중총회서 환경·시민단체 요구 대폭 수용 각계 인사로 범국민추진위 구성 투명성 확보키로

해인사주지 세민가 최근 논란이 된 내원암 불사를 축소하고 신행문화도량 건설 추진 과정을 공개하는 등 환경·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키로 했다. 이는 해인사 불사 추진을 둘러싸고 문중 스님들과 불교계 17개 시민단체들이 재검토를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해인사는 6월 25일 문중 스님 350

여 명이 참석한 산중총회를 통해 불사의 전모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불사에 대한 불교환경단체와 신행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임회에 구성 △팔만대장경 동판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산중 공의제도에 따른 문중 스님들의 이견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해인사 불사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과 요구사항들은 전문가와 스님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통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대장경 동판 복원 불사 역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되는 길이 열렸다.

이에 앞서 해인사 스님 78명은 6월 17일 이번 불사의 문제점을 지적

하는 ‘해인총림 현안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교계 17개 환경·시민 단체들은 6월 21일 불사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인사는 이에 따라 6월 23일 설 명회를 개최하고 “대형불사로 문제가 된 내원암원래 250여 평) 신축은 당초보다 규모를 1개동 축소해서 건립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신행문화도량 부지는 8천 6백여 평이지만 건폐율은 18.8%에 해당하는 1천 6백 평에 불과하다. 그 밖의 평수는 현존 상가를 이전시키고 자연환경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합천=강유신·배지선 기자

### 한-몽 청소년 친선교류

#### 8월11일 국제청소년 캠프

한·몽·일·러시아 청소년들의 상호교류를 돕기 위한 “2004 국제청소년 캠프”가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몽골 국립 나이람달 청소년센터와 국립공원 텔레지 등에서 열린다.

(사)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가 주최해 스마 낙타 체험, 몽골 전통사찰 참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이번 행사에는 한국인 청소년 70명 등 총 18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이람달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간의 국제교류, 몽골 전통문화 체험 등을 위해 1978년 울란바토르 인근에 설립됐다. 참가문의 (02)2278-8675 강유신 기자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이 해인사 스님들 앞에서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천미희 기자

### 故 김선일씨 극락왕생 기원

이러한 한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된 후 살해된 김선일 씨 사건과 관련, 조계종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대가연대는 6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조계종은 성명에서 “생명을 담보로 전쟁의 당사자도 아닌 민간인 김선일 씨를 납치, 살해한 이라크 내 무장단체들의 행위는 반인륜적 행위이며, 그 어떤 목적도 정당화

시켜주지 못한다”라며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 만행을 저지른 이라크 테러집단은 전 세계인 앞에 그 죄악에 대해 참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 범어사 박물관 경선스님, 재무국장 원범스님, 사서국장 정산 스님 등 범어사 스님들은 24일 해인사 스님들의

### 조계종·재가연대 등 추모·성명서 발표

를 찾아 조문했다. 대성스님은 “대한민국의 젊은 아들이 이라크에서 유명을 달리해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 이러한 희생자가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관음사는 27일 대법당에서 해인사 스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기도회를 봉행했다.

천미희·남동우 기자

### “종교자유 달라” 고교생 1인 시위

#### 개신교 설립 D고, 예배 강요·전학 권유 물의

개신교 재단에서 설립한 서울 동대문구 D고교 3년생인 강익석(18·사진) 군은 6월 16일 학내 방송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예배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D고교는 18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방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견학이념을 부정했다며 전학을 권유하기로 했다.

강 군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매일 1시간씩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cafe.daum.net/wbdrytkfkkl)를 통해 의견을 나누면서 종립학교 ‘종교행위’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D고교는 학생들의 종교와 관계없이 학급 단위로 매일 예배를 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전교생 예배를 하고 있다. 학급예배의 경우 반번호 순



으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고 있어 타종교 또는 비종교인은 강한 거부감을 느낄 정도.

개신교재단에서 설립한 서울 은평구 J고, Y고, 동대문구 H고교 등에서도 강제적인 종교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박봉영 기자

### 국립공원청 무용론 대두

#### 상정안건 100여개 모두 가결 ‘거수기’

국립공원 개발안을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환경부 차관, 이하 국립공위) 무용론이 대두됐다. 환경운동연합은 6월 22일 성명서에서 “지난 98년 국립공원이 환경부로 이관된 후 총 100여건의 공원개발사업이 국립공위 위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단 1건도 부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립공위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며 국립공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실제로 국립공위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2-3차례씩 12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논의한 55건의 현안 중 위안통과가 22건, 조건부 허가가 31건으로 부결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국립공위 총20명의 위원 중 환경, 건교, 농림 등 정부부

처 국·실정급 당연직이 10명을 차지하고 있어 심의가 정부 편향으로 흐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환경담당 김용구 주임은 “6월 23일 열린 55차 회의에서 지적된 것처럼 국립공원을 제외한 구간에 이미 공사를 진행시킨 뒤 심의 받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국고로 몇 백억 대의 공사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사안 자체를 부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즉 조계종 총무원장, 관료위원회의위원장 등 불교계 3인을 포함한 국립공위 위 민간인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회의 여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동우 기자

### 불국사·석굴암 관람료

#### 7월부터 최고 33% 인상

오는 7월 1일부터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문화재관람료가 어른 1000원, 어린이 및 청소년 500원씩 인상된다.

조계종 관료위원회의위원장 명섭, 구례 화엄사 주지는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04년도 1차 관료위원회의 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어른 1000원(기존 3000원), 청소년 개인 500원(기존 2500원), 어린이 개인 500원(기존 1500원), 유치원 250원(기존 750원) 등을 인상하는 경주 불국사 및 석굴암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통과시켰다.

또 이미 인상분을 징수하고 있는 양산 낙산사, 해남 대흥사, 강화 전등사, 울주 석남사 문화재관람료 인상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순천 송광사가 상정된 문화재관람료 어른 500원(기존 2500원) 인하안은 부결시켰다.

남동우 기자

### 목탁소리

홍기삼 동국대 총장이 6월 21일 긴급 교직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례적으로 800여명이 넘는 교수, 직원들이 중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모인 것만으로도 현재 학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안과 대학 경영진

### 동국대의 위기 인식

대개 무엇인

그러나 1시간이 넘게 진행된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사실상 홍 총장의 일방적인 설명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가 끝나자 중강당을 빠져나오던 일부 직원들은 ‘알맹이도 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푸념을 쏟아냈다.

홍 총장은 잇따른 악재에 대한

해명보다는 교제언론과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본질을 비껴나갔다. 학교 정상화에 대한 대안제시도 부족해 보였다.

많은 이들은 동국대 위기의 핵심을 수십 년을 종단 정지에 휘둘러온 학교재단의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인식하는 절대적 위기상황이다. 일산불교

대학 경영진

병원 교비전

용, 필동 중대

병원 매입 구

설수, 이사회 파행 등 어느 것 하나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다.

동국대 구성원들은 이제 재단이나 언론 탓은 그만하고 홍 총장이 직접 나서 학교경영의 중심을 잡아주기 바라고 있다. 자신의 거취나 인기가 걸고서라도 대학 최고 경영자로서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조용수 기자

### 전통의식 영산작법 복원편집

## 작법귀감 (作法龜鑑)

#### 200년전 백파(白波)선사가 순창 구암사에서 저술한 당대 최고의 불교의식집

이번에 복원된 <귀감>은 백파스님이 저술한 책을 원본으로 한글음을 달고 글자마다 소리음(四聲)을 표시해 누구나 쉽게 전통불교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천 스님이 표기한 소리음은 글자의 좌 우측, 위 아래에 점을 찍어 표기하는 방식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점은 거성으로 가장높이 구비치는 소리이고, 아래쪽 점은 입성으로 몹시 빠르게 달는 소리이다. 또한 왼쪽 상단의 점은 상성으로 처음에는 낮고 차차 높아져서 가장높게 그치는 소리이며, 그 아래 점은 평성으로 가장낮고 편안한 소리이다.

이처럼 <귀감>의 소리음 표기는 시,공간을 초월해 법에 맞는 염불송을 공양할수있어 전통불교의식 분야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이다.

- 현대불교신문 기사에서

소송은 그동안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백파선사의 '작법귀감(作法龜鑑)'을 찾아내 이번에 현대에 맞게 복원 편집하였습니다.

사찰에서의 의식은 전통의식으로 진행되어 부처님전에 여법한 공양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국 각 사암에 <작법귀감>을 한글씩 보급하고자 발원했지만 아직 범공양 인연을 만나지 못해 부득이 제작비를 받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범공양 하실 불자와 인연이 있기를 발원합니다.

전통의식 영산작법 <작법귀감> 복원편집 법 천 합창



작법귀감(상,하) 합본 45,000원

### ■ 구입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산 157-5 학림사 062-222-4133

농 협 601152-56-069667 / 우체국 503524-05-000419 예금주 윤수이